

안동김씨묘 출토 조선후기 원삼의 특징

이 태 옥[†] · 김 혜 영* · 조 우 현**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강사[†]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강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Charicteristics of Wonsam on An-dong Kim Clan's Tomb Relics in the later Chosun Dynasty

Tae-Ok Lee [†] · Hye-Young Kim* · Woo-Hyun Cho**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5. 7. 20. 접수; 8. 5. 채택)

Abstract

Wonsam, a type of Korean women's gown in Choseon Dynasty, was used as a small ceremonial costume for queens, crown princesses and princesses and as a grand ceremonial costume for royal concubines and wives of high rank officials. It was also worn as a wedding dress for commoners. In the families of illustrious officials, it was also used as burial accessories or garments for the dead. In this context, Wonsam is a formal dress for the people's most important four ceremonies of coming-of-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or worship. It is worth emphasizing the costume since it was widely and importantly used by all ranks of women, from royal families to commoners. Through the Wonsam of An-dong Kim Clan's, we can see what the society was like at the end of Choseon Dynasty. First, a status system that strictly divided costumes for each class, was, in many parts, broken down. Second, the highly wrought patterns and texture of fabrics of the Wonsam reveal that it was granted from Court, or, if woven by the Kim family, it is considered to be produced by the Court's craftsman or through technical transfer, considering that the weaving skills used are as good as those in Courts. Third, regarding the precise needlework that is uncomparable to textiles used by other illustrious officials families, the Wonsam is considered to be granted from Court or, produced through the needlework skills that were handed down from needlewomen in Courts. The Wonsam of An-dong Kim Clan's has noble beauty in it, with outstanding weaving skills, fabrics, needlework and shape. Thu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has those qualities to be the standard costume that inherits the tradition of Korean people.

Key Words: Wonsam(원삼), An-dong Kim Clan's(안동김씨), Needlework Skill(봉재)

[†] Corresponding author ; Woo-Hyun Cho

Tel. +82-16-326-1520, Fax. +82-2-760-0514

E-mail : joy54@hanmail.net

I. 서 언

조선시대에 있어 圓衫은 궁중에서는 왕비, 왕세자비, 세자비의 소례복인 동시에 내·외명부 婦人の 大禮服이었으며, 일반 서민의 혼례복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람이 죽은 후에 사대부가에서는 보공품과 수의로써 사용되었던 우리민족의 4대 큰 행사인 ‘冠婚喪祭’ 때 빠지지 않는 예복으로 매우 중요한 복식이다.

원삼의 사용용도로는 조선후기 이후 서민의 혼례복으로의 비중이 높으며, 현대에는 전통예식에 있어서의 신부의 예복으로 또는 서양식 예식 후에 신부가 시가에 첫인사를 드리는 폐백용 예복으로 사용되는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혼례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의 원삼은 조선시대 이후 형태, 직물 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부분 변화되었으나 전통복식으로의 중요도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원삼의 현존유물로는 이단 하부인의 원삼과 덕온공주, 화순옹주 등의 원삼, 그 밖에 여러 박물관에서 소장한 일반서민들이 사용한 원삼이 있으며, 최근에 안동김씨 분묘에서 발굴한 출토 유물 중, 수의 또는 보공품으로 출토되는 원삼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안동김씨 김수근 일가의 분묘에서 출토된 4점의 원삼을 조선후기의 현존유물 및 문헌상에 나타난 원삼들의 특징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조선후기 원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동김씨 김수근일가의 분묘에서 발견된 4점의 원삼은 소장자의 신원이 확실하며, 당시의 세도가문으로서 사대부가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따라서 출토복식의 봉제, 구성, 직물에 관한 자세한 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민족의 과거 예복문화의 생활상을 추론하여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연구방법은 선행되어진 연구 자료를 고찰함으로써 일반적인 원삼의 개요와 특징을 살펴본 후, 출토유물의 실측을 2002년 1월에 1차, 2005년 4월에 2차 조사를 하였다. 자료는 복원에 필요한 자료로 봉제 및 구성법을 살펴보고 사용된 직물의 세부적인 분석을 보완하였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연구되어진 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당시의 세도

가문으로서의 김수근 일가 복식의 특징을 고찰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는 첫째, 김수근 분묘에서 출토된 원삼의 구성상의 특징 및 봉제상의 특이점을 알아본다. 둘째, 원삼에 사용된 직물과 문양의 특징을 알아본다. 셋째, 타 유물 또는 문헌상에 나타난 동시대의 자료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통하여 예복으로서의 원삼이 갖는 전통적 의미를 되새기며, 조선시대 이후 전체적인 형태, 직물의 사용 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부분 변화되었으나, 전통복식으로의 중요도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문헌상 또는 유물로의 출현빈도가 높은 조선후기 원삼을 형태의 변화 및 특징을 찾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II. 안동김씨 김수근 일가의 출토복식

1) 조선후기의 사회적 배경 및 김수근 일가

안동김씨는 이족동본의 同姓이 있는데 조선후기 세도가문을 이루던 김수근의 가계는 신 안동김씨로 구 안동김씨와는 구별이 된다. 김수근 일가는 <육창(六昌)>으로 일컬어진 수창의 아들 6형제 중 맏아들 창집(昌集)의 후손으로 숙종때 영의정을, 둘째 창협(昌協)은 대사간을 지냈고, 셋째 창흠(昌翕)은 성리학에 밝아 학자로 명성을 떨쳤으며, 창업(昌業)은 문장과 도학으로 창집(昌緝), 창립(昌立)과 함께 가문을 중흥시켰다.

이들 육창의 인맥을 살펴보면 첫째 창집의 아들 제겸(濟謙)이 우부승에 이르렀고, 손자 이소(履素)가 정조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한 후 영돈녕부사에 이르렀다. 한편 창집의 현손 조순(祖淳)은 양관대제학에 올라 그의 딸이 순조의 비(순원왕후)가 되자 영안부원군에 봉해져서 철종때의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기초를 마련했다

창집(昌集)의 후손 중에서 거창부사 인순의 아들 수근(洙根)은 현종때 대사성과 이조 판서를 거쳐 선혜청 당상이 되고 병조와 형조판서를 역임한 후 한성부 판윤에 이르렀으며, 수근의 아들 병학(炳學)은 고종때 [철종실록]을 편찬하고 조두순, 이

유원과 함께 [대전회통]을 완성했다. 이러한 ‘신안동가문’을 가리켜 ‘금관자(金貫子)가 서 말’이라고 하여 큰 벼슬을 많이 내었다는 비유로 삼는데, 특히 조선 후기의 세도가문으로 더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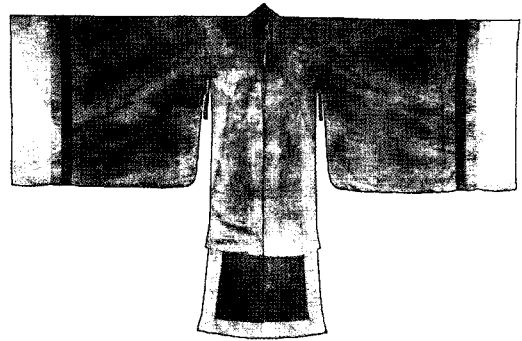
2) 김수근 일가의 출토복식

조선 후기에서 말기까지 약 60년 동안 막강한 세도를 부려 왔던 안동 김씨 일족의 襲衣와 散衣 등이 출토되었다. 습의는 고인의 마지막 성장이므로 정장을 하게 되어 있어 관복을 비롯하여 평례복 등이 포함되고 산의는 평상복 또는 피륙 등으로 채워진다.) 발굴된 분묘는 총 8기에서 출토된 약 230여 점의 의복류 가운데 남성용 예복 16점과 여성용 예복 11점, 평상복 저고리류의 41점과 하의류, 속옷을 포함한 직물류가 발굴되었다. 분묘의 발굴은 1979년 1차로 시작되었으며 의복에 대한 정리는 1984년에 이루어졌다. 韓山李氏(1865-1915) 김정규의 부인)의 신종록(慎終錄)에서 보이는 물목은 습의로 紅貢綾으로 만든 대대를 갖추고, 초록에 자주색의 선수(縵繡)를 놓고 안은 홍공릉으로 받혀졌던 원삼과 소림구에서 도류단원삼과 도류사원삼이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보고서에 의하면 원삼 4점과 원삼띠가 2점 출토되었고 습의로 사용되었던 원삼은 보이지 않고 산의로 쓰인 도류단원삼 1점과 신종록에서는 도류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능화수선문사로 제작되어진 원삼 1점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한산이씨의 진종록에 있는 물목과 무늬는 다르지만 수량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그밖에 겹감은 공단이고 안감은 운문단으로 된 겹 원삼과 수자호로박쥐문단으로 된 겹 원삼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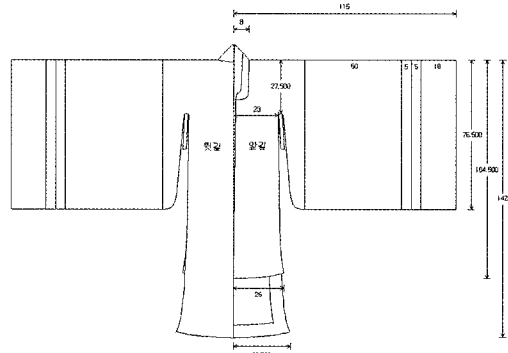
Ⅲ. 안동김씨묘 출토원삼의 종류

1) 안동김씨묘 출토원삼의 구조

원삼1은 안감과 겹감 모두 도류불수문단으로 사용하였고, 깃의 구성은 좌우 대칭이며 전체적으로 전단후장형의 겹원삼이다. 원삼의 치수는 뒷길이 142cm 앞길이104.5cm 뒤폭 47cm 화장(한삼포



(그림1) 원삼1의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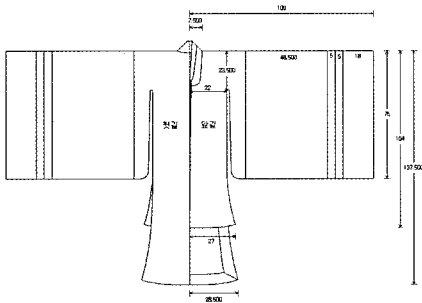
(그림2) 원삼1의 구조(단위:cm)

함)115cm 고대 16cm 진동 27.5cm 소매나비76.5 cm로 다른 유물들과 비교하여 일반적인 보통의 크기로 볼 수 있다. 구성상으로 도련선의 모서리가 당의의 도련선과 유사한 곡선의 형태이다. 소매는 대수삼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원삼2의 겹감은 능화수선문사이며 안감은 도류불수문사로 원삼1의 형태와 동일하게 보이며 도련선 또한 곡선의 형태를 하고 있다. 치수는 뒷길이 137cm 뒤폭 44cm 화장 111.5cm 고대 15cm 진동 24cm 소매나비 76cm로 원삼 1의 치수와 매우 유사하다. <그림1>과 <그림3>에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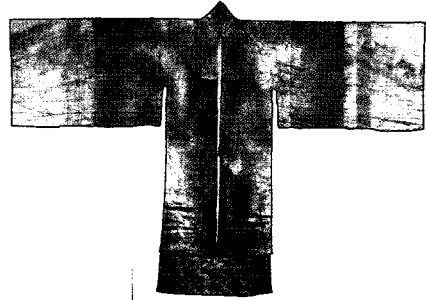
원삼 3의 형태는 길이가 전단후장이며 앞뒤 도련이 모두 직선이고 색동이 3개로 보인다. 안팎을 붙인 겹원삼으로 옷감은 안팎이 수자호로박쥐문단이다. 치수는 뒷길이 154cm 뒤폭 62cm 화장 102cm 고대 17.5cm 진동 30.5cm 앞 옆트임 107cm 뒤옆트임 120cm이다. 소매는 원삼 1, 2에 비해 좁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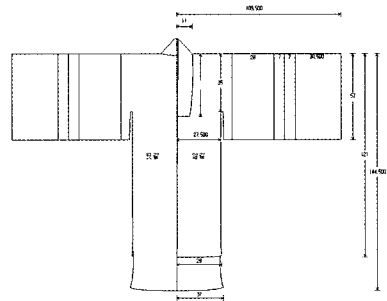
<그림3> 원삼2의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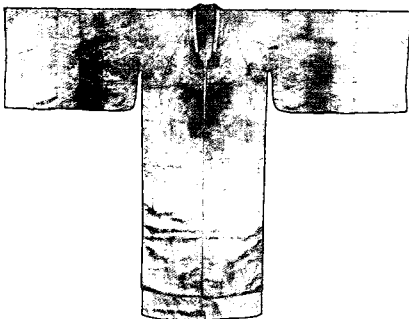
<그림4> 원삼2의 구조(단위: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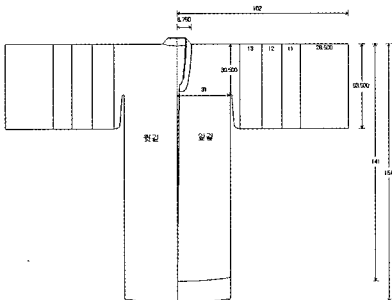
<그림7> 원삼4의 전면



<그림8> 원삼4의 구조(단위:cm)



<그림5> 원삼3의 전면



<그림6> 원삼3의 구조(단위:cm)

를 이루고 있다. 원삼4는 활옷과 비슷한 좌우대칭 목판깃의 형태이며 앞뒤 도련이 모두 직선의 형태를 갖으며 안팎을 같이 붙여 만든 겹원삼으로 겹감은 공단이고 안감은 四合如意雲紋緞이다. 치수는 뒷길이 144.5cm 뒤폭 55cm 화장 109.5cm 고대 22cm 진동 35cm 수구 57cm 앞 열트임 81cm 뒤 열트임 104.5cm 이다. 소매는 원삼3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원삼 4개의 치수를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으며 원삼 1, 2는 이중의 깃 형태와 대수삼의 소매, 치수의 구성, 선단의 구성형태로 매우 유사한 점이 있으며 원삼 3, 4는 직선의 도련구성과 원삼 1, 2에 비해 좁은 소매너비, 구성상의 넓은 치수로 매우 비슷하다. 또한 당시의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원삼과 비교하면 석주선기념 박물관에 소장중인 덕은공주의 원삼은 원삼 1, 2와 치수의 비례와 구성에 있어서 일치하는 점이 많다. 이는 안동김씨출토유에 많이 보이는 원삼의 구성형태나 봉제기법이 궁중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표1〉 원삼의 치수비교표

(단위:cm)

부분명칭	종류	원삼 1	원삼 2	원삼 3	원삼 4	덕은공주 원삼
구성방식	이중 원삼	이중 원삼	이중 원삼	겹	겹	이중
총 길이		142	137.5	154	144.5	164.5
앞 길이		104.5	104	141	121	129.8
뒷폭		47	44	62	55	44
앞폭(1/2)		23	22	31	27.5	22
화장(한삼 포함)		115	111.5	102	109.5	164
고대		16	15	17.5	22	13.5
소매길이(진동~부리)		91.5	89.5	71	82	142
소매둥(두리)		76.5	76	50.5	57	83
진동		27.5	24	30.5	35	23.5
색동 나비		5	5	12/11	7	4
한삼 나비		18	18	28.5	30.5	50
앞옆 트임		75.5	77	107	81	106.3
뒤옆 트임		112	113.5	120	104.5	141
깃 나비		3.5	3.5	4	10	3.5
결깃 길이		19	19	27.5	31.5	18
안깃 너비		7.6	7.5			7
대대고리 길이/너비		52.5×1.3				
동정 길이				58		
동정 나비			1	1.8		
선 나비		6.5	6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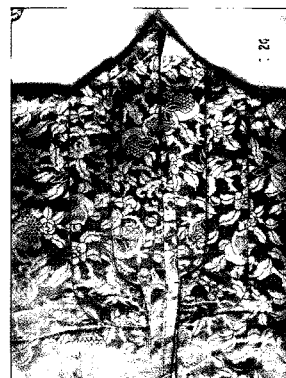
2) 안동김씨묘 출토원삼의 봉재

현재의 원삼은 신랑의 단령과 같이 신부들의 혼례복으로 착용되어지고 있다. 원삼의 형태와 구성은 초기에는 단령과 마찬가지로 결깃과 안깃의 이중 깃에 당의의 도련과 같은 곡선의 형태이다. 결과 안은 두 겹으로 각각 따로 봉재하여 결감과 안감 소매사이에 한삼을 끼워서 소매부분을 완성한다. 분리 되어 있는 길 부분 안감과 결감의 가장자리엔 각각 덧단을 대어서 단 처리를 하였다. 차츰 안팎을 고대쪽의 깃부분과 도련과 옆선의 가장자리를 같이 붙여 연결한다. 후기에 갈수록 앞길과 뒷길 자락은 직선화되어서 개화기에 구성은 현재의 저고리와 같이 앞뒷길을 결감과 안감의 겹쪽을 맞붙여 봉재한 후 앞길을 뒷길의 결감과 안감 사이에 넣어서 소매 배래를 4겹 박기를 한다. 깃은 안과 겹을 따로 다는데 출토된 유품 중 조선 후기로 추정되는 유품에는 안감 겹감을 붙여서 깃을 달고 그 위에 동정을 달기도 하였다.²⁾

1979년 경기도 화성에서 출토된 안동김씨 출토 유물중에서 발굴된 4점의 원삼을 각각의 봉재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삼1

깃의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좌우대금으로 안깃은 목판깃의 형태를 하고 있다. 깃의 둘레는 0.1cm 안으로 들어가서 팍수가 6개/1cm로 정교하게 박음질하여 상침을 했으며, 안쪽은 공구르기를 했다. 결깃과 안깃은 각각의 길에 따로 붙여있다. <그림9>은 원삼의 깃 모습이다. 동정은 달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깃 아래 5.5cm 간격으로 상하에 여밈 단추를 단 흔적이 보인다. 어깨솔은 꼰로 되어 있고 등솔은 시점이 1.5cm이며 봉재는 3개/1cm의 홈질이며 안감등솔은 2개/1cm의 홈질로 되었으며 결



〈그림9〉 원삼1깃모습



<그림10> 원삼1 띠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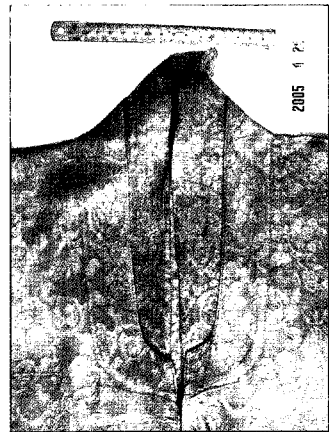
감 시점은 입어서 오른쪽이다. 옆트임은 앞길은 75.5cm 뒷길은 112cm 이다. 진동선 아래 3.5cm 까지는 4겹 박기를 하여 안과 겉을 고정했다. 진동선 아래 겨드랑이 양쪽에 나비 7cm의 원삼띠 <그림 10>를 걸 수 있게 1.3cm 나비에 52.5cm 길이로 된 띠고리가 달려있다.

소매는 수구가 76.5cm인 두리소매이며 색동은 5cm 나비로 2단이며 색동 끝부분에 덧단을 덧고 안감도 같은 방법으로 10cm의 덧단을 붙여서 완성했다. 색동과 한삼을 이어서 안감을 붙여 원통형으로 완성 한 것을 소매사이에 끼워서 겉감 쪽에서 공구르기를 한 다음 그 위에 안감을 대어서 공구르기를 했다. 배래는 3개/1cm의 홈질로 되었다. 단처리는 안팎의 앞 뒷길 도련에 덧대어 정리하는데 단 나비는 6.5cm 이며 안단은 1개/1.5 cm로 공구르기를 했으며 양 옆단을 한 후 밑단을 하는 순서로 했는데 모서리 처리는 밑단쪽을 사선으로 접어서 마

무리했다. 원삼의 안과 겉의 봉합은 원삼 겉과 안을 각각 완성하여서 고대와 옆선 가장자리, 도련을 같이 붙여서 1개/2.5cm로 공구르기로 마무리 했다.

② 원삼2

<그림11>의 겉깃은 겉감과 안감으로 2장이며 깃 길이가 19cm이며 깃에서 0.1cm 들어가서 10개/1cm로 정교하게 박음질하여 상침을 했다. 안깃<그림 12>은 목판깃이며 5개/2cm 땀수의 홈질이며 깃의 4 cm 위에 7cm 나비의 등정자국이 있다. 깃 아래 3cm 내려오는 곳에 3cm간격으로 상하 여밈 단추를 단 흔적이 있다. 어깨솔은 꼰로 되어 있고 등솔은 시점이 1.5cm로 4개/1cm의 홈질이며 안감의 등



<그림11> 원삼2 깃 모습

<표2> 원삼 1의 구성 특징

(단위:cm)

부분 명칭	봉재 방법	시점 크기	봉재방식(개/cm)	시점 방향	비고
등솔선		겉감 1.5	3/1 홈질	착용 시 우	겉소매 안소매의 배래 시점을 같이 징금
		안감 1.2	2/1 홈질	착용 시 좌	
진동선		1	4/1 홈질	가름솔	
수구		1	3/1 홈질	깃	
배래		겉감 1.5	3/1 홈질	뒤	
		안감 0.3	2/1 홈질	뒤	
겉깃		겉쪽 0.8	6/1 박음 상침	깃	
		안쪽 0.8	1/1 공구르기	깃	
안깃		겉쪽 0.8	2/1 홈질	깃	
		안쪽 0.8	1/1 공구르기	깃	
도련, 앞, 옆선		겉감 선단 0.5	3/2.5 홈질	깃	
		(단마무리 0.5)	1/1.5 공구르기	바깥쪽	
		안감 선단 0.5	3/2 홈질	깃	
		(단마무리 0.5)	1/2.5 공구르기	바깥쪽	
안 팍 봉합			1/2.5 공구르기		

〈표3〉 원삼 2의 봉제구성특징

(단위:cm)

부분 명칭	봉제 방법	시접 크기	봉제방식(개/cm)	시접 방향	비 고
등술선		겉감 1.5	4/1 홉질	착용 시 우	
		안감 1.8	3/1 홉질	착용 시 좌	
진동선		0.8	4/1 홉질	길	
수구		겉감 1cm를 안으로 넘김	1/1 공그르기	수구	
배래		겉감 1.5	3/1 홉질	뒤	겉소매 안소매의 배래 시접을 같이 정금
		안감 2	2/1 홉질	뒤	
겉깃		겉쪽 0.7	10/1 박음 상침	깃	
		안쪽 0.7	4/1 감칠질	깃	
안깃		겉쪽 1	4/1 홉질	깃	
		안쪽 1	1/1 공그르기	깃	
도련, 앞, 옆선		겉감 선단 0.5-0.7	2/1 홉질	길	
		(단마무리 0.7)	1/2 공그르기	바깥쪽	
		안감 선단 0.5-0.7	2/1 홉질	길	
		(단마무리 0.5)	1/2 공그르기	바깥쪽	
안팎 봉합		안팎 봉합	1/2 공그르기		



〈그림12〉 원삼2 안깃 모습

술은 3개/1cm의 홉질이다. 옆트임은 도련부분에서 앞길은 77cm 뒷길은 113.5cm로 트임이 있다.

소매는 겉감의 소매 배래 색동위에 6cm로 덧단을 대었고 안감 배래도 덧단을 대어서 정리를 한 다음 색동과 한삼을 이는 것을 안팎 소매 사이에 끼워 넣어 공그르기를 했는데 원삼1의 방법과 동일하다. 도련과 옆선에 붙여있는 단은 2개/1cm의 홉질로 되어있으며 단 마무리는 1개/2.5cm개의 공그르기를 했다. 밑단과 양 옆단을 <그림13>와 같이



〈그림13〉 도련의 모서리부분

연결하여 밑단을 접어 올려서 처리하였다. 뒷도련 중간부분에 단의 여유분을 뒤 중심선에서 주름을 약간 잡았다. 안감과 겉감의 봉합은 원삼1의 방법과 같다.

③ 원삼3

<그림14>과 같이 깃이 한개만 달린 옷감은 안팎이 수자호로박쥐문단이다. 깃나비는 4cm로써 전형적인 원삼 깃 모양의 겉깃 한 개로되었고 깃은 한 장이며 1.5cm 나비의 비단 동정이 깃머리에서 8.5cm 위에 달려있다. 소매의 수구는 50.5cm이며 색동나비는 길에서부터 차례로 13cm, 12cm, 11cm이며 한삼은 대화단으로 28.5cm이다. 소매배



〈그림14〉 원삼3 깃모습

〈표4〉 원삼 3의 봉제구성 특징

(단위:cm)

부분 명칭	봉제 방법	시접 크기	봉제방식(개/cm)	시접 방향	비고
등술선		겉감 0.7	3/1 홉질	착용 시 우	
		안감 0.7	3/1 홉질	착용 시 좌	
진동선		1	3/1 홉질	길	
수구		1	3/2 홉질	길	
배래		1	2/1 홉질	뒤	소매 뒤 진동 2.5cm 아래 부분부터 네겹 봉제
겉깃		0.7	2/1 홉질	깃	
		마무리 0.7	1/1.5 공그르기	깃	
안깃					
도련, 앞, 앞선 안팎 봉합		0.8-1	3/2 홉질		선단 없이 안팎 같이 봉합

래와 진동선 아래 3.5cm까지 4겹 박기를 하였다. 덧단은 붙이지 않고 겉감의 겉과 안감을 겹을 맞붙여 성글게 홉질하여 뒤집었다. 이 원삼은 크기나 바느질 등으로 보아 수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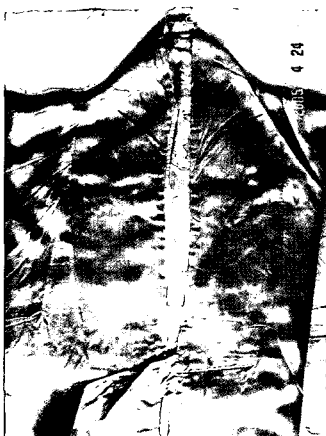
④ 원삼4

원삼4는 <그림15>과 같이 활옷과 비슷한 좌우대칭 목판깃의 형태이며 안팎을 같이 붙여 만든 겹원삼이다. 깃은 나비가 10cm이고 겉깃 길이가 31.5cm이며 한 장으로 구성된 목판깃이다. 시접 0.5cm 나비 1.2cm의 동정을 달았던 흔적이 있다. 몸판과 소매부분을 따로 완성하여 3개/1cm 홉질로 4겹박기로 연결하였고 시접이 안에서 나타난다. 소매의 시접은 길쪽이다. 소매배래와 진동아래 5cm를 앞깃과 뒷깃을 붙여 4겹박기를 했다. 왼쪽

길에 41.5cm x 4.5cm의 고름이 있고 오른쪽은 흔적만 있다. 뒷깃 아래에서 15cm윗 부분에 시신의 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습의(襲衣)로 사용된 것 같다.

이상과 같이 봉제와 구성을 통하여 본 원삼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원삼1.2는 이중의 원삼으로 깃 둘레 0.1cm 안으로 들어가서 원삼1은 땀수가 6개/1cm, 원삼2는 땀수가 10개/1cm로 정교하게 박음질하여 상침을 했으며, 안쪽은 공그르기를 했다. 겉깃과 안깃은 각각의 길에 따로 붙여었다. 단처리는 안팎의 앞 뒷길 도련에 덧대고 양 옆단을 한 후 모서리 처리는 밑단쪽을 사선으로 접어서 마무리했다. 원삼 겉과 안을 각각 완성하여서 고대와 옆선 가장자리, 도련을 같이 봉합했다. 구성과 봉제기법에서 턱온 공주 원삼과 거의 비슷하며 앞 뒷깃이와 화장만 조금 작다. 용도는 일상 생활에서 예복으로 착용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성면에서 궁중의 원삼과 비슷한 점은 당시의 사회에서 세도가 있는 안동김씨 양반가이기 때문에 궁중에서 사여한 하사품이라고도 추정이 가능하다.

원삼 3,4는 선단이 없이 안감과 겉감으로 된 겹원삼이다. 원삼3은 원삼의 깃에 동정이 달리고 원삼 4는 활옷 형태의 목판깃이다. 뒷깃 아래에서 15cm 윗 부분에 시신의 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전체적인 구성의 크기와 땀수가 3개/1cm인 바느질 형태로 미루어 수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5〉 원삼4 깃모습

〈표5〉 원삼 4의 봉제구성 특징

(단위:cm)

부분 명칭	봉제 방법	시접 크기	봉제방식(개/cm)	시접 방향	비 고
등솔선		겉감 0.7	3/1 홉질	착용 시 우	
		안감 0.7	3/1 홉질	착용 시 좌	
진동선		1	3/1 홉질	길	
수 구		1	3/2 홉질	길	
배 래		1	2/1 홉질	뒤	소매 뒤 진동 5cm 아래부분부터 네겹 봉제
겉 깃		0.5	2/1 홉질	깃	
		마무리 1.2	1/1.5 공그르기	깃	
안 깃					
도련, 앞, 옆선, 안 팍 봉합		0.8-1	3/2 홉질		선단 없이 안팍 같이 봉합

3) 안동김씨묘 출토 원삼의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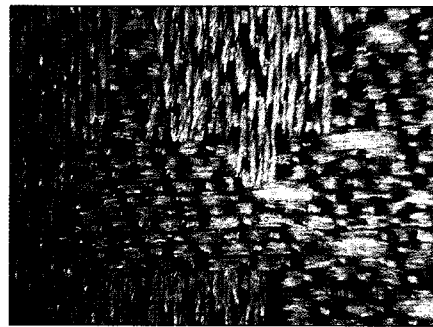
사례편람에 “여상의 습의(襲衣) 가운데 하나로써 색깔 있는 견(絹)이나 주(紬)를 사용하여 만들며 제례 때의 대의(大衣)와 같다고 했는데 보통 넓은 당의(唐衣) 모양과 같으며 길이는 무릎까지 오며 소매길이는 주척(周尺)으로 2척2촌이다. 일명 대수(大袖)혹 원삼이다.”고³⁾ 하며 한산이씨의 신종록(慎終錄)에 의한 습의의 원삼은 초록에 자주색 선수(纁繡)를 하고, 홍색의 무늬없는 능직물로 안을 받쳤고 홍색의 무늬 없는 능으로 대대를 갖춘다. 당의 또한 연두에 자주색 선수를 하고 안은 홍색의 무늬 없는 능으로 받힌다고⁴⁾ 하였다. 출토된 원삼은 신종록에 습의로 기록되어 있는 원삼은 보이지 않으나 소렴구에 사용된 명칭이 같은 원삼이 보인다. 원삼 4점의 직물 소재, 문양 등 각각의 특징을 살펴본다.

① 원삼1

안팍이 같은 감으로 되어 있는 도류불수단 원삼이다. 색깔동은 5cm나비로 2단을 달았는데, 길의 옷감과는 다른 보문금과 공단으로 되어 있고, 18cm나비의 한삼은 길과 동일한 문양의 도류불수단이다. 안감 소재에서 색동부분의 한삼은 색동의 겉감과 같은 문단이고, 다른 색동인 중조직의 안감은 보문호로 원문단이다. 한삼의 안감은 명주를 사용하였다.

문양은 직조문으로서 선행 연구⁵⁾에서는 도류단이라고 하였으나 복숭아와 석류, 불수감이 안팍의 길에 도안되었고, 도류불수문단 이란 바닥은 8매

경주자직에 무늬는 8매 변칙주자직으로 제직된 문단이다. 조선시대 후기의 단직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직양식이다. 무늬의 복숭아는 다수(多壽), 불수는 다복(多福), 석류는 다자(多子)를 상징하여 행복과 장수,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길상무늬로 조선시대 직물에 많이 사용된 문양도안이다.⁶⁾ 색동부분에는 보문으로 추정되는 문단이 보이며, 다른 한 색동에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지 않았지만 금직물이 나타난다. 사용된 조직은 문단인 경우 8매 변칙 주자직으로써 8매 정주자직에 조직점을 부가하여 더욱 견고하게 조직되었다. 공단은 중주자직으로 되어있고 다음 <그림16>과 같다. 한삼의 안감은 평직으로 조직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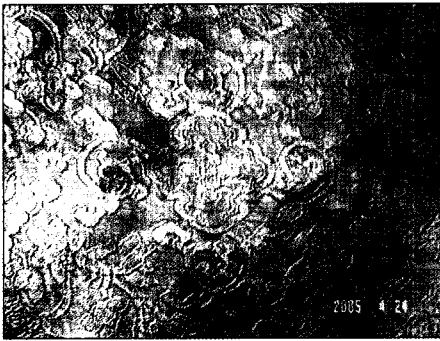


〈그림16〉 중주자직

② 원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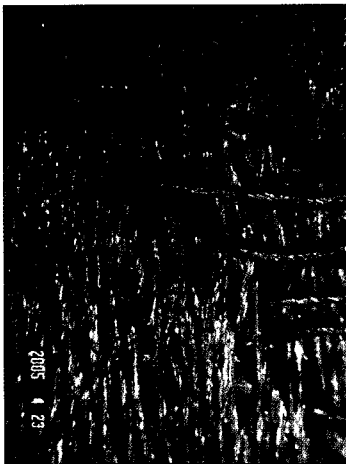
안팍이 모두 같은 종류의 문사로 되어 있으나 겉감, 안감, 단감의 문양이 모두 조금씩 다르며 선행 연구⁷⁾에서 겉감은 보문으로 표현하였으나 능화수 선문으로 정정되어져야 하며 안은 도류불수문사이다. 색동은 원삼1의 색동감과 동일 한 단으로 보

문단이며, 한삼의 겉감은 도류불수문사이고 안감은 명주이다. 겉감의 단과 색동의 안감부분에서 한쪽부분이 순인으로 부착되었으며 안감의단은 보문사로 둘러져 있다. 문양은 능화수선문사로 2경 꼬임 사조직 무늬의 경계선은 부직, 무늬 안은 평직과 부직으로 짜여졌다. 두 종류의 능화문에 수선을 사방 배치하여 유려한 곡선과 사실적 무늬의 표현⁸⁾ 되어 있다. 능화수선의 문양도안은 다음 <그림 17>와 같다.



<그림 17> 능화수선문양

도류불수문사는 도류불수문단과 같은 무늬로 보이며, 색동단의 보문은 여러 가지 보문이 보인다. 안감의 단에서 보이는 문양은 물고기, 해, 方勝紋 등의 문양이 보인다. 사용된 조직은 문사는 2경 꼬임 사조직이며, 겉감의 단과 색동 안감에 순인조직이 있고 한삼 안감에는 평직의 명주이다. 순인조직이란 평직과 2경 꼬임 사조직을 상하 좌우에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직



<그림 18> 경중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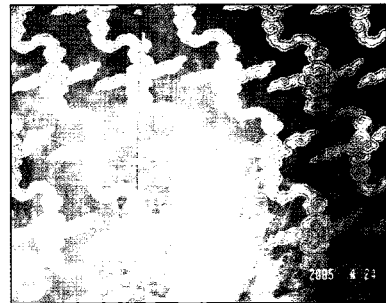
물 전체에 물고기 비닐과 같은 작은 무늬를 놓은 것으로 이와 같이 비늘무늬로만 짜여진 사직물⁹⁾을 이룬다. 보문금단의 조직도는 다음 <그림 18>과 같다.

③ 원삼3

선행연구¹⁰⁾에서는 겉감, 안감이 양단이라 하였으나 수자호로박쥐문단이며 색동도 겉감과 같은 소재이다. 한삼의 겉감은 대화단이며 안감은 삼팔주이다. 동정부분은 원문양으로 추정되는 문단이다. 문양은 수자, 호로, 박쥐문양이 보이고, 대화단에서 목단으로 추정되는 꽃문양이 나타난다. 사용된 조직을 살펴보면 문단은 8매 변칙주자직으로 되어있다.

④ 원삼4

겉감은 모두 공단이나 안감에서는 여러 종류의 소재를 찾아 볼 수 있다. 길은 사함여의운문단이며, 한삼과 안깃은 도류불수문단이다. 문양은 조선시대 남자복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운문단이 안감으로 되어있으며, 안감이 화려하게 구성되어졌다. 구름문양의 도안은 다음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구름문양

안동 김씨 원삼에 사용된 직물과 문양, 조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과 같다.

이상과 같이 원삼에 사용된 직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삼에 사용된 직물로 길 소재로는 貢緞, 四合如意雲紋緞, 桃榴佛手紋段, 壽子瓠盧蝠紋段, 菱花水仙紋紗, 桃榴佛手紋紗가 사용되었고, 색동의 소재는 수자호로박쥐문단과 공단에 이어 보문사와 보문금이 추가되었다. 한삼의 소재는 대화단, 공단, 도류불수문단, 도류불수문사가 겉감으로 사용되었고 안감으로는 삼팔주에 도류불수문단이

〈표6〉 원삼의 사용된 직물, 문양, 조직표

내 용	종 류	원삼 1	원삼 2	원삼 3	원삼 4
직물	길-길	桃柳佛手문단	菱花水仙문사	수자호로박쥐문단	공단
	길-안	桃柳佛手문단	桃柳佛手문사	수자호로박쥐문단	四合如意雲문단
	색동	보문금단, 공단	보문금단	길과 같음	공단
	한삼-길	桃柳佛手문단	桃柳佛手문사	대화단	공단
	한삼-안	명주	명주	공단	桃柳佛手문단
	기타	색동안감-보문단	안감의 단-보문사 겉감의 단-순인 색동안감-순인	동정-단	안깃-桃柳佛手문단
문양	길-길	桃柳, 佛手	菱花水仙	壽字, 葫蘆, 박쥐(蝙蝠)	없음
	길-안	桃柳, 佛手	桃柳, 佛手	壽字, 葫蘆, 박쥐(蝙蝠)	구름(雲紋)
	색동	보문, 없음	보문	길과 같음	없음
	한삼-길	桃柳, 佛手	桃柳, 佛手	대화단	없음
	한삼-안	없음	없음	없음	桃柳, 佛手
	기타	색동안감-보문, 원문양	안감의 단-보문 (물고기, 方勝紋, 해) 겉감의 단-순인 색동안감-순인	동정-원문양	안깃-桃柳, 佛手
조직	길-길	8매번치주자직	2경꼬임	8매번치주자직	5매주자직
	길-안	8매번치주자직	2경꼬임	8매번치주자직	5매주자직
	색동	경중조직, 중주자직	경중조직	8매번치주자직	5매주자직
	한삼-길	8매번치주자직	2경꼬임	주자직	5매주자직
	한삼-안	평직	평직	주자직	8매번치주자직
	기타		순인	동정	

사용되었다. 다른 부위에서 보이는 소재로는 동정에 원문양의 단이 보이고, 안감에서 보문사와 순인, 보문호로원문단이 사용되었다. 조직에서 도류 불수문단을 살펴보면 바닥은 8매 경주자직에 무늬는 8매2뿔의 변치주자직과 능화수선문사는 2경 꼬임의 사조직으로 조선시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직양식이다.

문양은 직조문으로서 복숭아와 석류, 불수문양이고 색동부분에는 보문으로 추정되는 문단이 보이며, 다른 한 색동에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지 않았지만 보문금이 나타난다. 안감의 단에서 보이는 문양은 물고기, 해, 방승문 등이다. 수자, 표주박, 박쥐문양이 보이고, 대화단에서 묵단으로 추정되는 꽃문양이 나타난다. 색상은 신종록에서 초록의 겉감과 자주색의 선, 홍색의 안감이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녹원공주 원삼의 색상도 초록의 겉감과 홍색의 안감, 그리고 남색의 선을 두르고 있으나 출토된 원삼의 색상은 변색이 되어 색상을 알 수가 없고 다만 전래되는 유품과 비교하여 추정할 수 있다.

IV. 조선 후기 원삼의 특징

우리나라 예복 중 포의 일반적인 형태는 길이가 무릎 아래에 이르며, 소매가 넓고 길며, 대를 둘러 여밈을 하고 깃과襟에 특정한 문양을 금박하거나 수를 놓는 옷을 총칭한다. 재료는 주로 羅로 겹이나 홑으로 내·외 이색을 조화시켰다. 조선시대 궁중 여자예복의 종류는 大衫, 翟衣, 團衫, 露衣, 長衫, 鞠衣, 圓衫, 唐衣 등이 있다.¹¹⁾

이들 중 원삼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유래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유래를 많은 학자들이 논하고 있다. 첫째는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온 澗袖衣가 고려 조선조를 거쳐 변화되어 장삼을 거쳐 원삼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의 褙子制의 영향속에서 변화된 배자가 조선조 중, 후기에 이르러 無袖로 집약되고, 장수배자는 원삼과 당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견해로 나타난다.¹²⁾

또한 이진영(1989)은 원삼의 전래에 대하여 통일신라시대의 澗袖衣가 장수 배자제의 영향을 받으

며, 국속화 한 것이 명백하며, 조선시대에 사여 단삼의 異名인 원삼을 복명으로 취하고, 단삼의 둥근 깃과 문양에 영향을 받아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삼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는 명대에 단삼과 원삼이 같은 복식의 명칭이었다는 것과 깃의 둥근 선과 문양에 약간의 유사점이 보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거가 없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원삼 기록을 찾아보면 일부 團衫이라고도 칭하며 명나라에서도 后妃의 경우에는 단삼, 병부의 경우에는 원삼으로 불렸으며, 예복에서도 단삼, 일명 원삼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삼국사기, 사례편람, 가례도감의궤, 상방정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³⁾ 초기에는 가례시 대삼에 단삼, 원삼 보다는 노의, 장삼을 예복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후기에는 인조 5년 昭顯세자 가례시에 단삼을 착용하였고, 또 영조 28년에 제정한 상방정례에 의하면 세자궁 또는 세자빈 가례시에 衣帶로서 노의, 장삼이 있고, 또 숙의 가례복에도 노의, 장삼, 원삼이 있다.¹⁴⁾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국혼 시에도 원삼을 사

용하였고, 인조 때는 세자빈과 숙의의 가례 시에 원삼을 제정하였다. 후에 고종 광무 원년부터 계급이 승격함에 따라 황후는 황색, 대비는 대홍색, 비빈은 자적색, 공주와 옹주는 녹색을 사용하였고, 일반서민들도 대례 시에 원삼과 족두리를 혼례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¹⁵⁾

조선시대 원삼의 형태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편람>에 나타난 원삼은 소매가 크고, 단에는 여러 가지 색의 옷감을 이어대었으며, 앞자락이 짧고 뒤가 길다. 일반이 입는 원삼의 깃은 겹치지 않게 마주보는데, 소매의 색동과 길이의 길고 짧음을 제거하면 소매달린 배자와 같다고 했다.¹⁶⁾ <居家雜服考>에는 원삼의 구성을 직물은 綠色으로 하고 옷깃은 길고 소매는 넓으며, 겨드랑이 아래는 봉하지 않는다. 소매에는 약 1촌 넘짓하게 홍, 백, 황을 이어 소매 끝에 이으니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고 이 예에는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다.

현존하는 유물의 형태를 근거로 살펴본 조선후기의 원삼의 형태는 궁중용과 민간용으로 그 형태

〈표7〉 원삼의 비교분석표

(단위 : cm)

종류 내용	이단하부인	화순옹주	덕은공주	금직녹원삼	고려대소장	덕혜옹주	민간용(I)	민간용(II)
소장처	李鍾厚	고려대 박물관	석주선 기념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	고려대 박물관	경희대 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	석주선 기념박물관
년대	1680년경	1740년경	1837년경	19세기 말	조선후기	조선후기	1890년	1890년
길이	131	133	164	142	139	116.5	131.4	110
화장	106	109	164	89	91	112.5	88	112
뒷폭	48	41	44	46	45	46		48
색동	홍 황 봉문금박	홍 황 雲寶織金緞	홍 황 壽자금박	홍 황	홍 황 직금	홍 황	홍, 청, 황, 분홍, 녹색, 자주	홍, 청, 황, 분홍
한삼		화문직금단			牡丹紋織金			
깃감	綠色 壽福桃榴佛 手緞	壽福桃榴佛 手緞	연두색 대화문사	두록색 壽福桃榴紋 緞	두록색 壽福桃榴紋 緞	두록색, 수복 매화국화불 수단	녹색사 박쥐구름문	연두 속고사
금직	壽福桃榴佛 手紋	포도동자문 직금	수자금박	수복도류문 직금	목단문	수복화문	X	X
금박 위치	앞뒷길어깨 뒷길중간 앞뒷길밑단	앞뒷길어깨 밑단	전체	앞뒷길어깨 뒷길중간 앞뒷길밑단	색동 한삼	앞뒷길어깨 뒷길중간 앞뒷길밑단		
비고	숙종조에 정경부인을 봉작되었을 때 국가에 서 하사	깃감, 안감 에 각각안단 을 대고 두 벌의 홉옷으 로 봉제한 뒤 군데군데 정그어 한 벌로 만들		조 대비 가 친가에 보 낸 것 이화 꽃을 박쥐 가 받들고 있는 형상 의 칠보단 추가 있다.	깃감과 안 감에 각각 남색 안단 을 대고 도 련을 오그 려서 연결		소매에 색동 길이 많다. 앞 뒤 길이 가 같다.	

〈출처:복식문화연구10(2), p. 171〉

를 달리하는데 일반적으로 궁중용은 궁중여인의 것과 궁중에서 班家로 사여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조선후기(1800-1900)의 궁중을 중심으로 한 명문 가문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원삼 유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정경부인 이단하부인의 원삼><화순옹주><덕은공주> 1900년대 <황후의 원삼>을 비교 할 때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그 깃과 소매의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길의 옆선은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화하고 있다. 색동의 색은 홍색과 황색을 주로 사용하고 문양은 신분에 따라 사용된 문양의 종류와 구성이 다르며, 궁중의 원삼에는 금박이 전체에 분포하나 반가의 원삼은 금박의 사용이 작아진다.

민간용의 원삼은 일반서민의 혼례복과 무속인의 무복을 가르킨다. 일반적인 원삼의 형태는 둥근 깃에 앞자락이 겹치지 않고 마주보는 對衿 양식이며, 옆 자락은 겨드랑이 아래부터 트임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앞길이가 뒷길보다 짧다. 또한 궁중의 원삼과 달리 소매는 여러 층을 이룬 두 줄 이상의 색동과 한삼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깃의 색이 길과 다르며, 전체적인 치수가 궁중에서 사용한 원삼 보다는 작게 제작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금박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전하고 있는 초록원삼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7>과 같다.

V. 결 언

현존하는 원삼 중 궁중에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5개의 원삼 직물을 고찰하면 길부분에는 도류문단, 도류불수문사, 수복자문단, 칠보문단, 연화당초문단, 공단, 운보문단, 목단문 등이 직조된 문단이고 색동의 소재로 鳳凰 金箔, 雲寶織金段, 壽字金箔 등이 사용되었다. 安東金氏 원삼의 직물도 도류불수문단, 수자문단, 칠보문단, 운문단 등의 고급 견직물로 이루어 졌으며 색동의 소재 또한 직금으로 추정되는 소재가 사용되어졌다. 또한 安東金氏 家門에 왕비가 3명이나 배출한 사실에 의거하여 당시의 사대부층 세도가 당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로는 선행되어 조사된 현존하는 조선후기 원삼8개 중 덕은공주의

원삼과 조대비가 친청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 화여대 박물관 소장의 금직 녹원삼, 궁중에서 하사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단하 부인의 원삼 등 공주 또는 옹주만이 사용하던 원삼 구성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생전에 사용하던 원삼(원삼 1,2) 뿐 아니라 원삼주인이 사후 사용하는 수의(원삼 3, 4)에서도 같은 형식의 크기와 구성이 보인 점은 궁중의 침모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궁중 바느질이 전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궁중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고급직물들인 도류불수문단, 수자문단, 칠보문단, 운문단등의 고급 견직물로 이루어 졌으며 색동의 소재 또한 직금으로 추정되는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직조문의 문양이 정교하고 세밀한 직물들로 궁중에서 하사된 직물이거나 기술이 전수되었거나 직접 직공을 데려다 사용 했을 것으로도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안동김씨 원삼을 통하여 본 조선후기의 사회적 특징은 첫째, 복식금제에 의해 철저히 제한되었던 의복에서의 신분제도가 많은 부분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안동김씨묘 출토 원삼이 다른 현존하는 조선 후기 원삼에 비해 크기나 봉제, 직물의 사용이 매우 화려한 점과 대부분 왕족의 원삼과 직물의 사용과 형태가 비슷한 구성과 크기를 갖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당시의 세도계층에서는 복식금제도 작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직물의 사용에 있어서 당시 안동김씨의 수의로 제작된 원삼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사용된 직물은 직물의 문양과 조직의 정교함으로 볼 때 궁중에서 하사 받았거나 직물의 생산도 자체적으로 되었더라도 그 기술력은 궁중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술이 전수 되었거나 궁중에서 일하던 장인이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묘에서 출토된 다른 복식을 근거로 볼 때, 자체 생산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셋째, 봉제 기법이 기존의 사대부 집에서의 것과는 다르게 매우 정밀하며, 정교한 점으로 미루어 궁중에서 하사 받았거나 궁중 침모에 의해 전수 되어진 바느질 기법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경로로 궁중에서 전수되던 고급 봉제기술이 민간에도 전해져 전반적인 봉제기술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이 안동김씨의 원삼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직물, 봉제, 형태 등에서 매우

뛰어난 귀족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민족의 전통성을 이어주는 예복의 표준으로써 매우 적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안동김씨 출토원삼의 형태 및 구성, 봉제기법, 직물사용의 특징을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원삼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궁중중심의 예복 뿐 아니라 무복, 민간예복 등 매우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으므로 본 연구가 조선후기의 모든 원삼을 대표하지 못 한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된다. 그러나 현대 한국인에 필요한 전통성있고, 품위있는 아름다운 전통 예복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형태와 구성의 필요한 표준화 작업을 위한 자료로서의 본 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박순희 (1989). 조선시대 궁중 여자복식의 미적 특성 고찰. 호남대학교 논문집 10, p.13.
- 2) 이진영 (1989). 韓國圓衫의 由來糾明을 위한 形態的 考察.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
- 3) 송미경 (2002). 18세기 여성 염습의 일례에 관한 고찰-안동권씨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52(6), p.119.
- 4) 圓衫 草綠紫縐繡 內拱紅貢綾 具大帶紅貢綾 唐衣 軟豆紫縐繡 內拱紅貢綾.
- 5) 유희경, 김미자, 강경애 (1989). 안동김씨분묘 발굴조사보고서. 온양민속박물관, p.203.
- 6)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 소출판부, p.147.
- 7) 유희경, 김미자, 강경애 (1989). Op. cit., p.204.
- 8) 심연옥 (2002). Op. cit., p.195.
- 9) Ibid., p.201.
- 10) 유희경, 김미자, 강경애 (1989). Op. cit., p.204.
- 11) 三國史記. 卷 第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 新羅條.
- 12) 전혜숙, 김숙경 (2002). 조선후기 여자 혼례복에 관한연구. 服飾文化研究 10(2), p.170.
- 13) 전혜숙, 김숙경 (2002). Op. cit., p.170.
- 14) 고복남 원문 재해석.
- 15) 전혜숙, 김숙경 (2002). Op. cit., pp.160-177.
- 16) 유희경, 김미자, 강경애 (1989). Op. cit., p.202.
- 17) 배상경 (1996). 이단하 부인 대례복(원삼)에 대한 연구. 보존 과학회지 5(2), p.19.